한화투자증권

2026년 1월 22일
매크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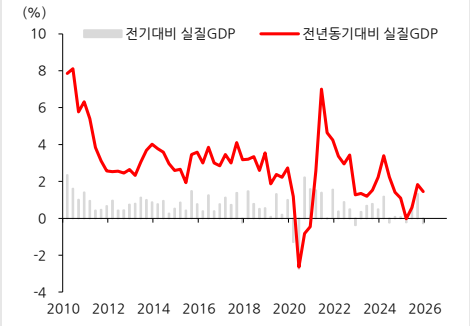
Macro Review

4/4분기 한국 GDP: 올해는 수출과 투자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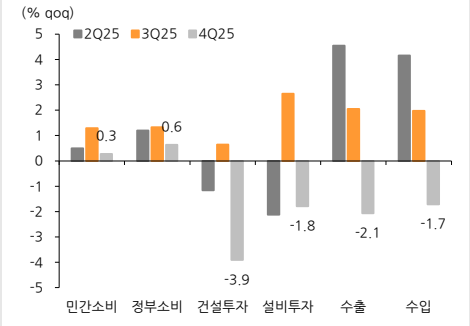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4/4 분기 GDP: 전기대비 -0.3%, 전년동기대비 +1.5%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세부항목 전반적으로 둔화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올해 성장은 수출과 투자가 주도할 전망입니다. 관세 여파가 완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관련 대외 환경이 개선되고 국내 정책 효과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4/4분기 GDP 예상치 하회

지난해 한국 4/4분기 GDP는 전기대비 0.3% 감소(전년동기대비 1.5% 성장). 건설투자(-3.9%)와 설비투자(-1.8%)가 부진했고, 수출(-2.1%)은 감소 전환. 민간소비(+0.3%) 또한 약해지며 예상치 하회. 제조업(-1.5%)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둔화

2025년 경제성장률 1.0%. 민간소비(+1.3%)와 수출(+4.1%)이 양호했지만, 건설투자(-9.9%) 악화가 성장률을 끌어내렸음

소비는 선방

투자 둔화로 성장 약화. 건설투자(-0.5%p)와 설비투자(-0.2%p), 순수출(-0.2%p)이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 투자가 약해지며 내수(-0.1%p)의 성장 기여도도 하락. 다만 민간(+0.1%p)과 정부(+0.1%p)소비 둔화 폭은 비교적 크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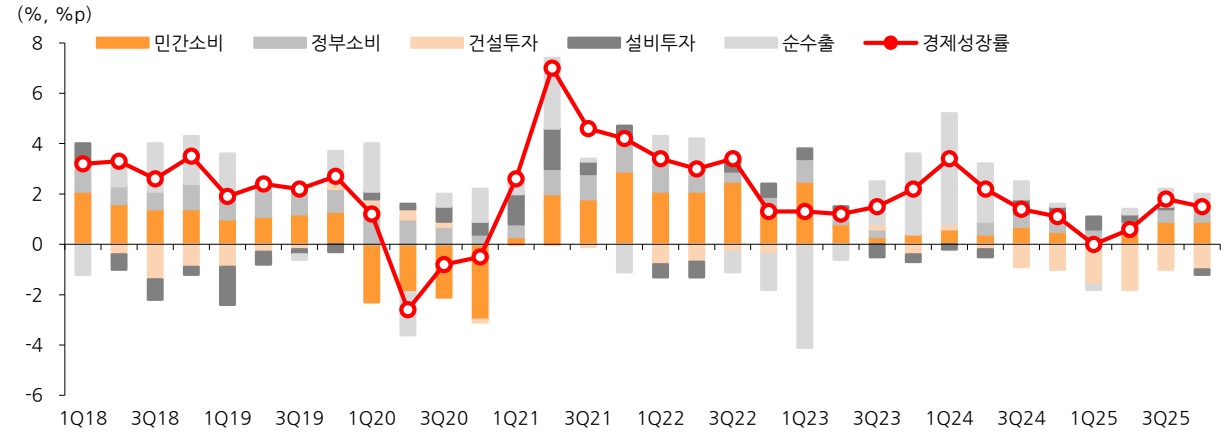
올해는 수출과 투자에 기대

올해는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관세 여파가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확장재정과 제조업 강화 기조를 고려하면 글로벌 제조업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

수출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예상. 미국과 중국 제조업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주요국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관세 여파도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전망. 한국도 올해 R&D 예산을 20% 가량 늘렸기 때문에, 대내외 전반적으로 수출과 투자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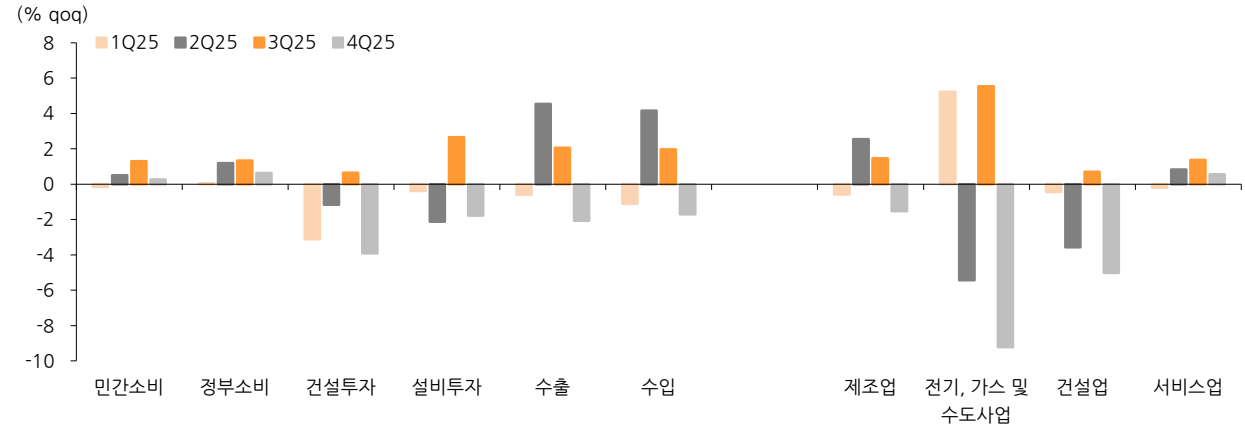
소비 또한 크게 약해지진 않을 것. 연말에는 정부의 소비쿠폰 효과가 약해지며 소비가 둔화됐지만, 성장 기여도는 비교적 양호했음. 소비심리도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소비가 경기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낮음. 올해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고 소비가 버티며 2% 초반대 성장 예상

[그림1] 4/4 분기 GDP: 양호한 소비 vs. 설비투자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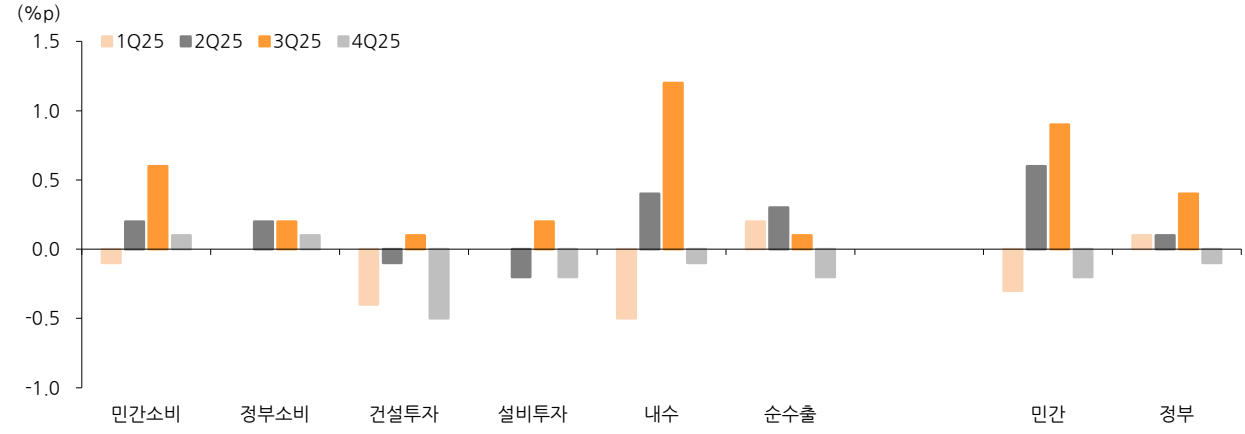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지출항목 및 경제활동별 성장률: 세부항목 전반적으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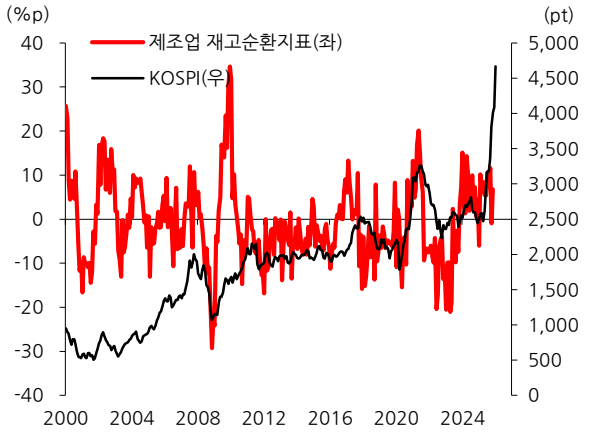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GDP 에 대한 전기대비 기여도: 투자와 수출 감소로 전기대비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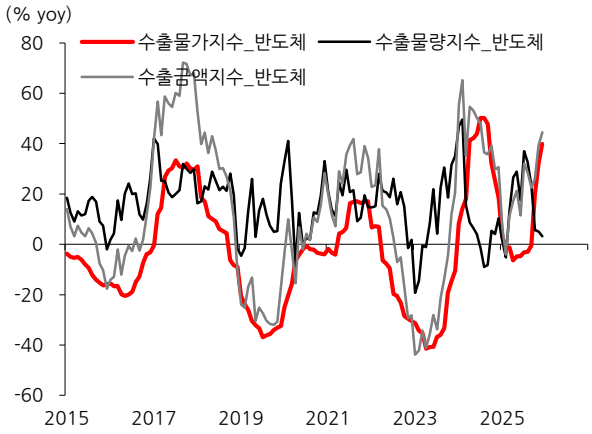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제조업 재고 사이클이 개선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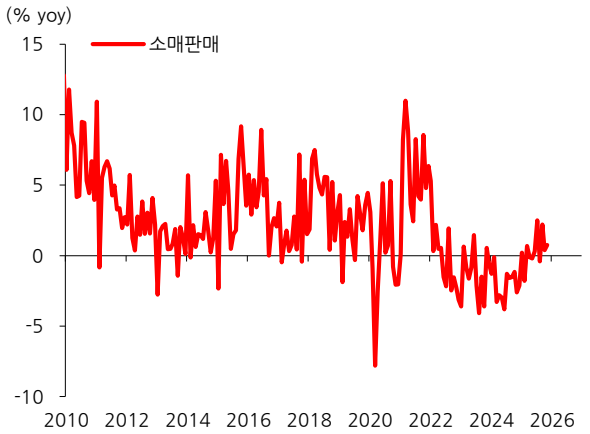
주: 재고순환지표(%p) = 출하 증감률(%) - 재고 증감률(%)
자료: 통계청,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반도체 수출 환경도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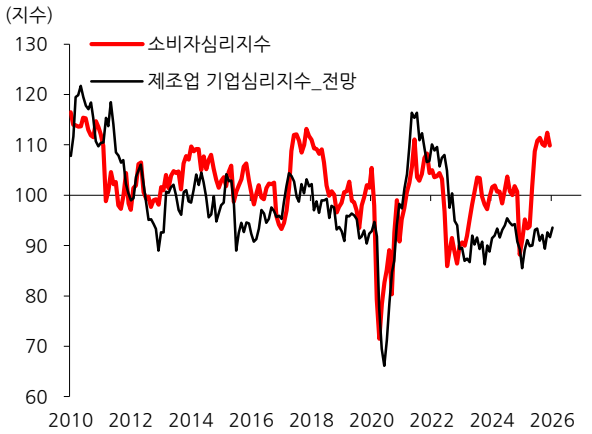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소비 둔화 폭이 크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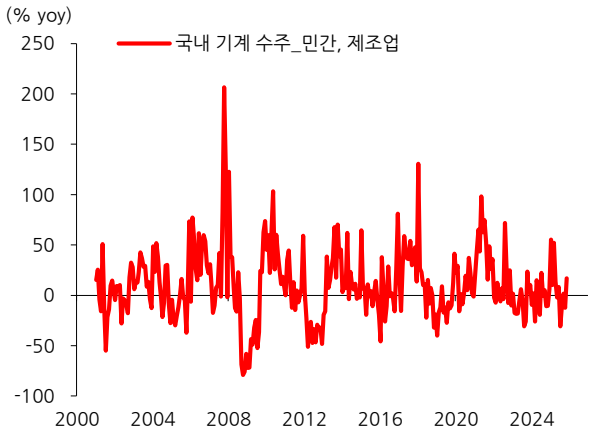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기업심리도 저점을 통과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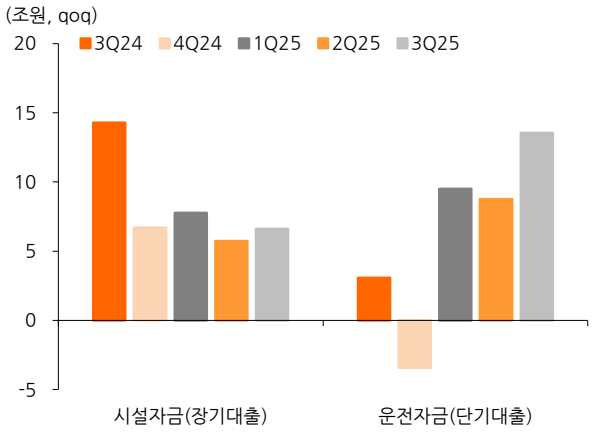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민간 제조업 기계 수주 반등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향후 투자는 점차 개선될 가능성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